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홍구**

- I. 머리말
- II. 총선과 일당우위제의 확립
- III. 일당 우위제의 정치적 결과: 권위주의적 통치형태
- IV. 권위주의적 통치와 정치행위자들의 반응
- V. 맺는말

오늘날 태국의 정치구조는 1997년 개정헌법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구조의 특징들이 2000년 이후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함으로써 빈번한 연립내각의 교체가 개선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타이락타이당의 압도적인 일당우위제가 확립되어 권위주의적 통치형태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심각한 정치불안이 발생했다.

둘째, 최초로 상원 직선을 치름으로써 관료세력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간섭에 의해 상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 결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개입까지 초래되었다.

셋째, 권위주의 정부의 간섭으로 사법적 준수법적 기구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다.

넷째, 탁신 정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운동세력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KRF-2004-072-BM3010).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운동세력은 탁신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 되어 탁신의 일시적인 수상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

다섯째, 태국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특징짓는 입헌군주제 하의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과거 정치적 위기 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유효했다.

주제어: 1997년개정헌법, 총선, 정치구조, 권위주의

1. 머리말

태국 정치구조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32년 절대군주제가 붕괴되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까지는 관료지배체제(bureaucratic polity)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는 준(準) 민주주의(semi-democracy) 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Riggs 1966; Chai-Anan 1986). 관료지배체제의 특징은 군과 민간관료들이 정치영역을 지배했다는 것이며, 준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관료세력과 비 관료세력이 권력을 공유했다.

준 민주주의 체제는 1990년대 들어서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태국에는 두 가지 커다란 정치변동이 발생했다. 1991년 2월 쿠데타와 1992년 5월 민주화운동이 그것이다. 비관료세력에 대해 점차 권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군은 1991년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쿠데타 이듬해인 1992년 시민사회운동세력과 중산층이 주도하게 되는 5월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여 군부정권은 퇴진하고 문민정부가 다시 등장했다. 이때부터 태국의 권위주의 정치구조의 약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정당, 의회, 시민사회운동 세력 등 비관료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증대했다(김홍구 2003).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도 박차가 가해져 1997년에는 태국 정치 사상 가장 민주적이라고 불렸던 개정헌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 개정헌법은 오늘날 태국 정치구조의 근간을 만들게 되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1980년대 이후 태국의 정치구조를 특징지은 준 민주주의 체제의 한 단계 높은 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 이었다(Punthong 1997). 개정 헌법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하여 정당과 의회정치의 질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상원을 직접 선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민간과 군 관료세력의 상원 진출을 억제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또 개정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조성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입헌군주제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태국에는 개정헌법에 따라 2000년과 2006년 상원의원 선거, 2001년, 2005년, 2006년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져 현재의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선거결과 정치구조의 실체는 개정헌법에서 의도하던 바와 달리 나타났다. 총선 후 정당체제와 의회구조는 변화했으나 선거 때마다 탁싌(Thakshin Shinawatra)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이 절대적으로 압승했다. 소수정당들로 구성된 연립내각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 현상이 크게 사라진 반면에 일당 독주와 그로 인한 권력의 권위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타이락타이당 일당우위의 확립과 권위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

된 정치적 불만은 2005년 총선이 끝나고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발생한 탁썬 일가의 친(Shin) 그룹 주식 매각사건을 촉매요인으로 하여 정권 퇴진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탁썬 수상은 의회를 해산하고 2006년 4월 2일 총선을 실시하여 선거에 승리했지만 일시적으로 수상의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탁썬의 일시적 퇴진 후 헌법재판소가 총선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빌미 삼아 탁썬은 다시 수상직에 복귀했다. 이후 정국은 극도로 혼란케 되었으며 9월 19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개정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결과 초래된 태국 정치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두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개정헌법에 따른 새로운 정치구조의 특징은 소수정당의 난립 방지와 다당제를 지양한 정당체제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의 도모, 관료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 이 글에서는 개정헌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진 후 전개되는 정치상황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총선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정당체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정당체제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치행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각 장에서 나타난 정치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추적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도 해볼 것이다.

II. 총선과 일당우위제의 확립

개정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 후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소수정당 난립현상과 다당제 정당체제의 변화였다. 개정헌법에서는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정당명 부병립비례대표제(최소조항이 보장된)로 바꾸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함으로써 정치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선거결과 이런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일당우위제가 확립되어 형성된 정치안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1997년 개정헌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3 차례의 하원의원 선거가 있었으며(상원의원 선거는 2 차례) 선거결과는 타이락타이당의 압승이었다. 2001년 1월 6일 선거에는 43개 정당이 출마했다. 지역구와 정당명부에서 모두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5개 정당(타이락타이, 뿌라차티팻, 찻타이, 찻파타나, 콰왕마이)이었으며, 4개 정당(썬리탐, 랏싸던, 깃쌍콤, 틴타이 당)은 지역구의석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4개 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살펴보면, 타이락타이당은 지역구 200석, 정당명부 48석 모두 248석을 확보하였으며 뿌라차티팻당(Prachatipat, Democrat Party)은 128석(지역구 97석, 정당명부 31석), 찻타이당(Chart Thai Party) 41석(지역구 35석, 정당명부 6석), 콰왕마이당(New Aspiration Party) 36석(지역구 28석, 정당명부 8석), 찻파타나당(Chart Pattana Party) 29석(지역구 22석, 정당명부 7석), 썬리탐당(Seri Tham Party) 14석(지역구 14석)이다(Phakhaphaatiwat 2002: 248).

일당우위제 확립은 선거제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³⁾ 2001년 선거 후 지역적 기반을 갖는 야당과의 합당효과가

3) 일당우위제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 선거제도 외적인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97년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호소력 강한 대중영

그것이다. 타이락타이당의 탁싸 수상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회 내 절대 다수석을 점하기 위해서 합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탁싸은 선거 직후인 2001년 2월 쉼리탐당(14석)을 합당시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콤왕마이당, 찻타이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후 2002년 초까지 콤왕마이당을 흡수하여 300석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다. 또 찻팟타나당과의 합당도 계속 추진하던 중 여의치 않자 처음에는 일부 의원들을 빼내기식으로 개별 입당 시키다가 2004년 8월까지 찻팟타나당도 합당시켰다. 뿐만 아니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 하고 있던 찻타이당과도 합당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합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2004년 중반까지 부리람(Buri Ram)파벌의 보스인 네윈(Newin Chidchorp)은 찻타이당의 12명의 의원을 데리고 타이락타이당에 입당하게 된다. 게다가 제 1 야당인 뿌라차티땃당에서도 몇 명의 의원이 타이락타이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말 의회 의석수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선거 후 248석을 획득한 타이락타이당은 319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찻타이당 27석(원래 41 석), 뿌라차티땃당은 110석(128석)을 차지했다.

2005년 2월 6일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는 20개의 정당이 출마했다. 지역구와 정당명부에서 모두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3개 정당(타이락타이, 뿌라차티땃, 찻타이당)이며 지역구의석만을 획득한 정당은 1개 정당(마하춘당)이었다. 16개 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살펴보면, 타이락타이당은 지역구 310석, 정당명부 67석 모두 377석을 확보하여 태국 최초의 단독정권을

합주의적 정책을 들고 나온 탁싸 개인과 타이락타이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2001년 선거 후 지역적 기반을 갖는 콤왕마이당, 쉼리탐당, 찻팟타나당과의 합당효과를 들 수 있다. 합당을 통해 타이락타이당은 일당 우위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2005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구성했다. 프라차티팻당은 96석(지역구 70석, 정당명부 26석), 찏타이당 25석(지역구 18석, 정당명부 7석), 마하촌당(Mahachon Party) 1석(지역구 1석)이다(<http://www.bangkokpost.com/election2005/graphic/policies1.gif>(2005/03/08)).

한편 가장 최근에 치러지긴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2006년 4월 2일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타이락타이당은 278개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했다. 후보가 단독 출마한 지역에서 후보자는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40개 선거구(17개 쩡왓)에서 4월 23일 1차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또 4월 30일 2차 보궐선거가 남부 14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행정재판소에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림에 따라 (Bangkokpost 2006/05/02) 선거결과외석 수는 타이락타이당 475석(지역구 375석, 정당명부 100석)이었으며 기타 정당이 9석이었다.⁴⁾

지금까지 살펴 본 바같이 신헌법 하에서 치러진 2001년, 2005년, 2006년 선거에서 소선거구·정당명부비례대표 병립제는 정당의 난립과 다당제를 약화시키고 1당우위제를 크게 촉진시켰다. 세 차례 선거를 비교해 볼 때 2006년 출마정당의 수가 2001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소위 유효정당의 수가 감소한 것은 다당제에서 탈피하고 있는 태국 정치변동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관련된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3월 선거 후 치러진 7차례의 선거에서 10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을 살펴

4) the People Power Party 3석, the Khonkhoplodnee Party 3석, the Prachakorn Party 2석, the Phalang Dharma Party가 1석을 얻었으며 이들 정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의 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보면 92년(3월) 6개 정당, 92년(9월) 6 개 정당, 95년(7월) 9개 정당, 96년(11월) 5개 정당이었는데 2001년(1월) 6 개 정당, 2005년(2월) 3 개 정당, 2006년(4월) 1 개 정당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제 1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을 살펴보면 21.9%(92년 3월), 21.9%(92년 9월), 23.5%(95년), 32%(96년), 49.6%(2001년), 75.4%(2005년), 95%(20076년)였다. 또한 92년 이래 선거 후 연립내각을 구성한 정당 수를 살펴보면 5개 정당(92년 3월), 4 개 정당(92년 9월), 7개 정당(95년), 6 개 정당(96년), 3개 정당(2001년), 2개 정당(2005년), 1개 정당(20076년)이다(김홍구 2005, 20).

위 7차례 선거 중 2006년 4월 선거는 야당의 보이콧 속에서 치러진 점을 당연히 감안해야 할 것이지만 야당이 참여해서 선거를 치렀어도 타이락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지 상대적으로 큰 승리가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타이락타이당 1당 우위의 경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타이락타이당 일당우위의 정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었다. 그 요인은 당내 파벌주의와 야당의 존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요인들은 일당우위제 확립에 위협적이지 못했다.

탁썬은 일당우위의 정당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정당들과 합당을 하거나 또는 개별 영입함으로써 타이락타이당 내 권력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탁썬은 2004년 두 차례를 비롯해 모두 10차례의 내각을 교체하기도 했다. 주요 파벌은 탁썬 직계 파벌(약 100명), 싸너(Sanoh Thienthong)가 이끄는 왕 남 옌(Wang Nam Yen)파벌(약 70명), 탁썬의 여동생이 이끄는 왕 부어 반(Wang Bua Ban) 파벌(약 70명), 방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벌(약 30명) 등이 있었다.⁵⁾ 그러나 이들 파벌은 궁극적으로는 탁썬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탁썬의 독단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현행 헌법 107조 4항과 깊은 관계가 있다.⁶⁾ 이 조항에 대해서 하원의원들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도 정당 소속 조항에 대해서 국민보다 정당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 조항의 개정문제는 정치권 각 계파간의 이합집산을 초래해 커다란 정치변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⁷⁾

야당의 세력도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실질적인 야당세력은 뿌라차티뻏당 뿐이었으나(타이락타이당은 찻타이당과 연정구성) 의석수가 110석에 불과하여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조차 의회에서 상정할 수가 없었다. 뿌라차티뻏당내 사정도 복잡했다. 2003년 뿌라차티뻏당의 당수는 추원(Chuan Leekpai)에서 반얏(Banyat Banyathan)으로 대체되었으나 반얏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치인이었다. 오히려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정치인 아피싯(Abhisit Vejjajiva)은 추원 수상이 후계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당수직 선거에서 낙선했다. 선거전략가이며 오랫동안 당의 후원자였던 썬난(Sanan Kachomprasart)과 부총재인 아넥(Anek Laothammathat)은 탈당하여 7월에 마하쏬당을 창당함으로써 당력

5) 현재 타이락타이당의 파벌은 Wang Nam Yom 130, Rim Nam 15, Lamtakong 7, Wang Phya Nga 10, Chon Buri 7, Central provinces 10 석으로 분류된다(*The Nation* 2006/07/04)

6) 107조 4항의 핵심은 "하원의원은 소속 당을 떠나면 그 직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출당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당으로 옮겨 갈 수도 있는데 출당 당한 사람이 헌법 재판소에 고소하여(당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유권자에 대해서 행할 임무를 방해했다는 근거로) 승소할 경우다. 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최소 90일 전에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 보궐선거나 총선거는 의석이 공석이거나 의회해산 후 60일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당의 운영에 불만이 많았던 타이락타이당 내 왕남옌 파벌의 수장인 썬너 티안통(Snoh Thienthong)은 107조 4항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탈당을 원했지만 탈당 후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출마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탈당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의 손실을 가져왔다(Panasornprasit 2004, 259-260).

타이락타이당의 독주와 정부를 견제할 수 없었던 야당들은 무기력했다. 2005년 선거를 앞두고 뿌라차티뻏당 등 야당들이 제기한 가장 큰 이슈는 타이락타이당의 일당지배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였다. 제 1야당인 뿌라차티뻏당은 타이락타이당의 1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201석 이상 뽑아주세요"라는 구호와 함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 4월 2일 선거에서 뿌라차티뻏당은 다른 주요 야당과 함께 선거에 불참하였다.

이상과 같이 타이락타이당이 일당우위제를 확고히 강화하면서 다당제 연립정부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불안정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97년 개정헌법은 수상에 대한 불신임논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하원의원 5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의 발의를 필요로 하고,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논의를 위해서는 5분의 1 이상(100석 이상)의 발의를 필요로 했으나 절대다수의석을 확보한 탁싨은 임기 중 야당의 불신임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고 강력한 정부를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파행적인 의회정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III. 일당 우위제의 정치적 결과: 권위주의적 통치행태

의회 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해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탁싨 정권은 선거기간 중 환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중영합주의적(populist) 인 정책공약⁸⁾을 실현시키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8) 탁싨은 부실채권문제 해결, 농가부채상환 3년 유예, 농가 마을 당 100만 바트 지원, 의료보험제도 전국확대, 국영자산관리공사(AMC: National Asset Management Corp.)

받았다. 국민들 사이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탁싨 개인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그는 종종 “백마 탄 기사(atsawin ma khao, 아싸윈 마 카오)”로 불려졌다.⁹⁾ 대중융합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CEO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탁싨은 일의 효율성과 업적을 중시했으며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변해 갔다.¹⁰⁾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는 인권탄압과 언론자유훼손, 시민사회운동세력과의 갈등, 독립적인 기구들과 상원의 활동에 대한 간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인권탄압과 언론자유훼손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몇 가지 실제의 예는 개정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탄압과 언론자유훼손이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

탁싨은 집권 후 마약, 빈곤,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 그는 3개월 내에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고, 빈곤을 6년 내에 퇴치하고, 문맹을 10년 내에 없애겠다고 장담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2003년 2월 1일

설립과 함께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은 농촌과 서민층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Jayasuriya and Hewison 2004, 3).

9) 태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자 뿌라 (Prawese Wasi)은 탁싨은 국가 문제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송했다(Nelson 2001, 369). 후일 탁싨 퇴진의 선봉에 서게 되는 쏜티조차도 초기에 “탁싨은 지금까지 (태국에는)없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10) 흔히 탁싨 정권의 정치체제를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또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Pongsudhirak 2003), .

선포됐다. 3개월 동안 58, 000명이 투옥되고 2, 274명이 사망했으며 42, 000명 이상의 마약거래업자들이 자수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Mutebi 2003, 78-80).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인권 문제를 도외시켰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했다. 특히 수사절차 없는 초법적인 처형의 사례가 비난대상이 되었다. 이런 예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Thai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비롯한 국내 인권 기구들과 유엔 인권 고등위원회(U.N.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가 개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졌다. 뿌라차티뻏당의 추원(Chuan Leekkpai) 전 수상은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인권유린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2003년 8월 두개의 새로운 반 테러법을 만들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Panasornprasit 2004, 258).

또 다른 인권 탄압의 사례는 남부사태의 강경진압에서 나타났다.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에는 1950년 이래 분리주의 운동이 존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태국정부는 이슬람과 지역 문화적 전통 특히 이슬람 학교에서의 말레이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에 맞선 대표적인 전통적 분리운동단체는 팻파니연합해방기구(PULO: the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와 민족해방전선(BRN: National Liberation Front) 등이었다. 이들은 태국정부의 억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서서 싸웠다. 하지만 1980년대 정치적 자유화시기가 오고 무슬림 엘리트들의 정치참여의 기회가 열린 후 분리주의 운동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90년대 초들어서는 더 이상 호전적인 분리주의운동은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탁싸 집권 후 2004년 초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화된 소요사건이 다시 발생했다.¹¹⁾

2004년 한 해 동안 세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다. 1월 4일에 나라티왓(Narathiwat), 팻따니(Pattani), 알라(Yala)에서 군부대와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4월 28일에는 무장단체가 군부대를 습격한 후 팻따니에 있는 끄르세 모스크(Krue Se Mosque)를 점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108명의 무장반군과 5명의 보안요원이 숨졌다. 10월 25일 나라티왓의 딱바이(Tak Bai)에서는 8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Albritton 2005, 166).

정부의 강경진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사건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과잉진압이라고 결론지었다. 2004년 1월 4일 총기탈취사건 후 2006년 1월까지 사망자 1,076명, 부상자 1,600명을 기록했다. 급기야 2006년 5월 말 코피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태국 인권단체에서는 남부사태나 마약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태국정부의 인권탄압과 유린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The Nation 2006/05/26).

탁씨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성향은 대언론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1년 3월 타이락타이당의 편집간여에 대해 반발하는 23명의 iTV 직원들이 강제 퇴출되었다. iTV는 탁씨가 2000년에 매입한 TV방송국이다. 8월에는 반부패위원회로부터 재산공개누락혐의로 대법원에 고발되어있던 탁씨의 유죄 가능성을 담은 태국의 한 신문 기사가 로이터 기사에 인용된 적이 있는 데 경찰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이즈음해서 태국방송저널리스트협회(Thai Broadcasting Journalists Association)는 정부의 라디오와 TV간섭사례 14건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2001년을 “언론 간섭의 해”라고 했다(Funston 2002, 313). 뿐만 아니라 탁씨가 의장으로 있던 돈세탁방지위원회(Anti-

11)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슬람 호전주의자들, 구 분리주의 네트워크, 정치=관료-군 네트워크, CIA, 마피아 관련설 등이 있으나 어떤 것도 확실치는 않다.

Money Laundering Office)가 247명 이상의 유명저널리스트와 시민 운동가들의 은행구좌를 조사한 사건은 언론탄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다(Pongsudhirak 2003, 285).

탁씬은 수차례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언론개혁가인 쑤펜야(Supinya Klangnarong)와 타이 포스트(Thai Post)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다. 탁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친(Shin) 그룹이 정부 정책 추진에서 불공평한 이득을 얻었음을 보도하자 4억 바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형사법원은 2006년 3월 15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탁씬은 푸찻칸(Phuchatkan) 신문사의 창립자인 쏬티(Sondhi Limthongkul)에 대해서도 국왕모독을 이유로 6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5년 12월 4일 국왕의 요청으로 소 취하를 한 적이 있다. 탁씬은 2006년 4월 2일 총선 후 일시 수상의 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복귀한 후에도 뿌라차티뻏당과 주요 3대 일간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The Nation 2006/06/15).

2. 시민사회운동세력과 갈등심화

개정헌법에서 추구한 중요한 정치구조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인권탄압과 언론자유훼손의 예에서 보듯이 탁씬 정권은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운동세력과 갈등을 심화시켜 나갔다.

1997년 경제위기 발발과 민주헌법의 의회통과 이후 출범한 추원 정부 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갈등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가가 시민사회를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양자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탁신평부가 들어선 후 이 같은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중융합주의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탁신평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발전방식의 미덕을 공공연히 칭찬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 비자유주의적 정치모델을 추켜세우면서 정부와 야당은 국민의 최대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며, 적대적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rown and Hewison 2004, 8-9).

야당과 시민사회운동진영으로부터 탁신평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침해 사례는 큰 비난을 받았다. 탁신평 정부가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 및 언론사 간부, 기자들 인사, 방송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개입하고, 그가 소유하는 친나왓 그룹의 광고물을 지렛대로 언론보도를 조종하는 등 사실상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Brown and Hewison 2004, 10).

탁신평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과 NGO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였다. 2003년 10월 아태경제포럼(APEC)이 방콕에서 열릴 즈음에 탁신평 수상은 시민사회운동진영을 향해 회기 동안 어떠한 형태의 시위라도 시도할 경우 “오랫동안 쓰러린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NGO들은 해외로부터 “기금을 모으기 위해”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탁신평의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문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인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인권단체간에 긴장이 생겨났다. 양자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탁신평정권이 NGO들을 통제하려는 NGO 등록법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박은홍 2004).

탁신평 정부와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 악화현상은 2005년 하원의원 선거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선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과정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반응 중 특이한 것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타이락타이당의 일당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이동운 2005: 280-281). 일부 시민단체들은 뿌라차티뻏당의 선거운동구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타이락타이당의 일당지배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에게 최소 20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ngkokpost* 2005/01/20).

결국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은 2006년 들어서 쏘티 등을 주도세력으로 삼아 민주주의 국민연맹(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꺄름 판타밋 뿌라차촌 프어 뿌라차티빠다이)을 조직해 2002년 5월 사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권위주의 탁썬 정부에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PAD는 탁썬 퇴진운동을 벌이던 중 정치적 위기를 모면코자 탁썬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2006년 4월 2일 총선을 보이콧하고 총선에서 기권표 던지기 운동을 벌여 성공함으로써 탁썬 수상을 수상의 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3. 독립적인 기구 활동 관여

개정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적·준사법적 기구를 신설했다. 이런 취지에 의해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반부패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신설되었다. 이런 기구들의 신설에 관한 내용은 개정헌법에 따라 정치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들- 관료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적 영

향력 확대 등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구들은 권위주의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개정헌법에 따라 신설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하원 의원선거가 끝난 후 무려 4차례나 재선거를 치를 정도로 부정선거퇴치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후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정치권, 특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함으로써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편파적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¹²⁾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2001년 5월 26일 만료되었을 때 각 정당들은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인물을 위원에 임명하기 위해서 맹렬한 로비를 벌였다. 그 결과 국민적 신망이 없는 인물들이 위원에 대거 임명되었으며 위원장에 임명된 씨린(General Sirin Thooopklam)은 사기혐의로 상원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인사였다. 또 어떤 위원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든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서 일단의 상원의원들이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McCargo 2002, 257).

2001년 선거와는 달리 2005년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논란이 많이 불거졌다. “선관위를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양이일 뿐이다”라는 비하의 말까지 나돌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는 입후보자뿐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 만들기에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모욕적인 언급도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

12) 추원 전 수상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위원회와 같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이유를 “많은 위원들이 권력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토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The Nation* 2006/07/12).

거에서 돈, 영향력, 국가권력의 세 가지 악을 추방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타이락타이당에 의한 라디오, TV등의 미디어 장악에 대해서도 선거기간 내내 논란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였다. 대중민주주의(the 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 사무총장은 많은 선거부정이 밝혀졌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후보에게도 레드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뿌라차티땃당이 왕실연설을 캠페인 스티커에 부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반면에 남부지방에서 타이락타이당을 위해 대표행위를 한 네윈(Newin Chidchob)농업부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았다(*Bangkokpost* 2005/02/03).

2006년 4월 2일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민주주의 국민연맹(PAD)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을 문제 삼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선거를 하원 해산 후 45일 이내에 서둘러 타이락타이당에 유리하게 치렀으며(60일내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 선거부스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선거과정을 밖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며, 타이락타이당 후보가 단독 출마한 선거구의 경우 최소득표율인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얻기 힘든 선거구에서 소수 정당을 매수하여 입후보하게 했고, 재선거에서 이미 출마한 정당외의 정당 후보자를 출마 시킨 것이 제기된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다.

2006년 5월 8일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가 총선 무효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선거를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부적절한 선거관리'의 혐의로 기소된 3인의 위원 (왓싸나 랍 - 전 선관위원장¹³⁾, 빠린냐 낙찻뜨리, 위라차이 내

13) 왓싸나(Vasana Puemlarp)는 탁썬 수상과 같은 경찰 출신으로 탁썬과의 신분이 두터웠다.

우분나안) 은 형사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4년 및 10년간의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게 되었다. (*Bangkokpost* 2006/07/25) 이 들은 고위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투옥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서서 편파적 행동을 일삼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존재 의의마저 부정당한 셈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몇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타이락타이당이 집권한 직후 반부패위원회는 탁싨 수상의 재산공개 누락혐의를 헌법재판소에 고발했으나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순수성과 권위 손상을 초래했으며 개정헌법의 선별적 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었다. 2005년 2월 28명의 상원의원들은 탁싨 총리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탁싨 총리가 자산을 은닉함으로써 헌법 209 조에 명시된 “현직 의원은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 검토 탄원을 기각시켰다(*Bangkokpost* 2005/02/03).

탁싨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 돈세탁 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ffice)는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 왔다.¹⁴⁾ 2002년 이 기구는 정부에 비판적인 국영 멀티미디어 그룹(National Multimedia Group) 편집위원들의 은행구좌를 수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싸그룹 매각과 관련해 탁싨의 아들과 딸의 앰플리치(Ample Rich)사 의혹 사건에 대해선 법 규정 외의 일이라고 수사하지 않음으로서 비난을 받았다(*The Nation* 2006/08/01). 특별수사국(DSI: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도

14) 탁싨은 경찰 출신이며 집권 후 예비사관학교, 경찰사관학교 동기생들이나 그 출신들을 중용했다.

편파적인 활동으로 비난받았다. 이 기구는 심지어 수상의 정적을 위협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수사국장 쏴뱃(Sombat Amornwiwat)역시 탁썬과 같은 경찰 출신이었는데 현직 방콕 시장인 아피락(Apirak Kosayodhin)의 방콕 시 200억 메가프로젝트 등의 사건에서 그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둔 반면에 친 탁썬 인사는 보호해 주는 편파수사를 벌였다.¹⁵⁾

4. 상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개정헌법에 따라 2000년 3월 4일과 2006년 4월 19일(4월 23일 보궐선거) 두 차례나 상원의원을 직선한 일은 태국 정치발전사에 획기적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 1932년 입헌혁명 후 관료지배체제 정치구조를 특징지으면서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임명 상원제도였다. 군, 민간관료 집단이 장악했던 상원은 직선하원을 강력히 견제하는 의회 내 세력이 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었다. 32년 입헌혁명 후 7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임명 상원제도는 97년 개정헌법으로 폐지되고 2000년에는 최초의 직접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 상원선거에서는 76개도에서 200명의 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상원의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2000년에 최초로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는 관료세력의 상원진출은 크게 줄었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7차례나 재선거가 치러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의 소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상원의원 200

15) 뿌라차티땃당은 특별 수사국이 CTX 사건(신공항 검색대 폭발물 탐지장치 도입 수뢰 의혹사건)이 발생했을 때 타이락타이당 인사가 포함된 미국측의 뇌물 공여자 명단을 덮어 두었다고 주장했다 (The Nation 2006/08/01).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정치인들의 부인, 아들, 친지들이었으며 3분의 1은 전직 정부 관료출신이었다(Chatornvong 2002, 208). 상원의장과 상원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정당의 로비가 극심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또 행정부로부터 빈번히 고유의 영역을 침범 당했다. 정부를 지지하는 상원의원과 지지하지 않는 상원의원간의 알력도 심각했다. 또한 독립적인 기구에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서 신망을 잃게 되었다. 16)

2006년 4월 상원의원 선거결과도 정치인들의 친인척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중립적인 역할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그래서 혹자는 상원을 패밀리 하우스(Family House) 또는, 싸파 푸어-싸파 미야(남편과 부인 국회) 라고 조소적으로 명명하기도 했다.¹⁷⁾ 2006년 4월 상원의원선거후 치러진 후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상원의원 200명 중 144명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106명이 타이락타이당, 38명이 빠라차티팻당 및 차타이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명은 전직 관료들이고 48명은 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이었다(Bangkokpost 2006/04/21).

개정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행정부를 직접 견제하거나, 상원의원들이 직접 선발되거나 상원이 임명하는 멤버로 구성되는 다양한 독립적인 기구-선거관리 위원회, 반부패위원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원은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원이 선발한 독립적 기구는 정치권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상황에 있다.

16)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장 (Auditor-General Office) 과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때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두 개 기관의 장은 상원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다.

17) 빠라차티팻당 고문인 추원은 상원이 싸파 싸미 판라야(부부국회)가 되었다고 했다 (Daily News 2006/04/24).

이상에서 살펴 본 바같이 독립적인 기구들이나 상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IV. 권위주의적 통치와 정치행위자들의 반응

1. 시민사회운동세력의 탁싌 퇴진운동

2005년 말 태국의 네이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2005년) 2월 선거에서 타이락타이당이 압승 한 이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탁싌 수상이 몰락의 길에 들어설 줄 안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The Nation* 2005/12/31).” 선거 후 약 1년간의 탁싌의 지지율은 2005년 2월 6일 80%에서 11월 1일 20%, 12월 21일 30%로 급락하고 있었다. 탁싌은 중산층, 시민사회, 인텔리 계층, 주요 기업으로부터 급속히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반 탁싌 세력은 인권탄압, 언론자유 훼손, 독립적인 기구에 대한 간섭, 권력 남용, 가족과 측근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후일 반 탁싌의 선봉에 서게 되는 세력은 PAD 라는 시민사회운동단체였지만 초기에 반 탁싌 세력의 규합에 나선 사람은 언론재벌인 쏘티(Sondhi Limthongkul)였다. 원래 쏘티는 탁싌의 지지자였다.

18) 2006년 4월 28-29일 여론 조사기구인 Abac(Assump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poll이 방콕과 그 인근에 사는 1,86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 70%가 대법원 신뢰, 68%가 행정법원 신뢰, 63%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있으나 반부패위원회는 41%가 신뢰하며 34%만이 상원을 신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는 32%로 급격히 하락했다(선거 이전에는 40%)(*Bangkokpost* 2006/05/01).

그는 “탁썬은 과거에 없었던 태국 최고의 수상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쏘티가 탁썬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CTX 부정 사건과 남부사태가 발생 한 후였다. 쏘티는 마침 TV 채널 9번의 주간태국(Thailand Weekly Talk Show)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를 비난하다 프로그램이 폐지되자 장외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탐마삿대학 강당에서 탁썬수상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으나 2005년 10월 28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일과가 끝난 후 노란색(왕실 상징) 셔츠를 입고 롬피니 공원에서 집회를 주도해 급기야 시민운동, 학생 등과 연합세력을 구축했다.¹⁹⁾

쏘티를 중심으로 한 반탁썬 세력은 초기에 탁썬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비난하면서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의 요지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체제가 갖추어져 수상의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의회 구조상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하원 5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또 독립적인 기구들의 구성원 선발과정을 바꾸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구성원 수도 늘려 각 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6년 단임으로 규정된 상원임기 제한 철폐, 대졸자 이상으로 제한한 하원의원 자격의 철폐 등이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헌법 107조 4항의 90일 조항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탁썬이 헌법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반탁썬 세력들은 한 발 더나가 탁썬 수상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사건은 탁썬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친 코

19) 이 집회가 관심을 끌자 케이블 TV인 ASTV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13일에는 집회 후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수상관저까지 행진하여 난입한 사건도 발생했다.

퍼레이션(Shin Corp.)의 지분매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발발하기 전에도 부정부패 사건은 탁썬 정권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특정 기업특혜, 주가조작, 특정집단을 위한 경제정책 입안,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뇌물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²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탁썬과 가족, 친지의 부정부패문제였는데 주식매각사건은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탁썬 수상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친 코퍼레이션의 지분 49.59%를 싱가포르 국영투자기구인 테마섹(Temasek)에 모두 매각, 총 733억 바트의 수익을 얻었고, 합법적인 면세 혜택을 받아 260억 바트의 세금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탁썬을 일시적으로 퇴진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쏬티를 중심으로 한 반 탁썬 세력은 처음에 수 천 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방콕의 중산층과 학생층으로 참여자가 늘어나자 민주주의 국민연맹(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꺄룸 판타밋 뿌라 차춘 프어 뿌라차티빠파이)이라는 단체로 확대 발전되었다. PAD는 수많은 독립적인 시민운동조직들-노동자, 학생, 지식인, 대학 강사, 정치적 행동주의자들과 종교 그룹-이 느슨하게 연합된 형태였다. 그들의 목적은 탁썬 수상을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PAD를 구성하는 데는 쏬티의 역할이 컸다.

20) 대표적인 사례는 신공항 검색대 폭발물 탐지장치(CTX bomb scanner) 도입 수뢰의 흑사건으로 쉐완나품 공항 탐지기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뇌물 수수 의혹인데, 태국 정부는 총 43억 바트를 투자해서 이 탐지기의 설치를 추진했으며 이 사건으로 쉐리야 쥔룽레angkit(Suriya Jungreangkit) 교통부 장관직이 사임(후일 부총리 임명)했다. 국영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심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금년 초 탁썬은 발본색원 할 것이며 투명한 정부입찰을 위한 e-auction제 도입(2월 1일부터), 암행감사제도 도입 등을 발표하고 현재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행정 비효율이 제거되면 40%의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PAD의 퇴진압력에 직면해서 탁싰는 2006년 2월 24일 의회를 해산시키고 4월 2일 조기총선을 치를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PAD와 주요 야당들은 총선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으나 선거는 감행되었다. 하지만 PAD의 선거 보이콧 결정은 태국 정치사상 유래가 없었던 1,000만표의 기권표²¹⁾를 만들어내 선거의 정당성을 치명적으로 훼손시켰으며 결국은 선거에서 이긴 탁싰를 일시적으로 퇴진시켰을 뿐 아니라 총선을 무효화시켜 새로운 총선을 이끌어 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월 2일 총선에서 타이락타이당은 정당명부제에서 1,640,000표를 얻어 100석을 모두 얻었다. 정당명부제 기권표는 9,050,000표, 무효표는 160만표 였다 (*Bangkokpost* 2006/04/13). 타이락타이당은 지역구에서 1,510만표를 얻고(399 개 지역구, 54%) 기권표는 930만표 였다. 사실상 선거결과를 타이락타이당의 압승이었지만 기권표가 타이락타이당 일당 우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기권표가 특히 많이 나온 곳은 정치적 여론층이 다수인 방콕과 남부지역이었다.

한편 탁싰가 일시적으로 수상의 직에서 물러난 후 PAD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주후에 행정법원이 4월 2일 총선을 무효화한 후 이를 명분 삼아 탁싰가 수상의 직에 다시 돌아오자 PAD의 반탁싰 활동은 재개되었다.²²⁾

21) 기권표는 투표용지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22) 탁싰가 수상의 직으로 다시 돌아온 후 새로운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출현했다. 2006년 8월 6일 발족된 "탁싰체제종식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Civil Society Network to Stop the Thaksin System(CSNS))"가 그것이다. 이 조직은 대학강사, 학생, 시민운동가, 사업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짜른 폭판(Charoen Pokphand Group)과 네스카페(Nescafe), 그램미 그룹(Grammy Group)과 같은 재벌그룹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과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PAD와 같이 대규모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과 경찰수뇌부, 전국의 지방경찰에 대해서도 선거부정을 막고 탁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편지공세를 펴기로 했다(*Bangkokpost* 2006/08/07).

2. 군의 정치적 역할

1992년 5월 사태 이래 군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00년 직선 상원을 선출한 후 제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제한되었다. 또 정당 활동을 통한 군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도 사라져 갔다.²³⁾ 정치 외 분야인 외교안보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태국 군은 과거와 비교해 직업주의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탁싨과 반 탁싨 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군사 쿠데타 설이 몇 차례 씩이나 횡행했지만 그때마다 군은 정치 불개입을 천명하곤 했다. 하지만 정치적 격변기의 군 외부적 상황은 군의 정치개입을 점차 유인하게 되었다. 탁싨과 반 탁싨 세력 양측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을 이용하고 군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했다.

현재 태국 군은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사관학교(the Armed Forces Preparatory School) 6기생들은 현재 군 수뇌부에 포진해있고 10기생들은 수도권내, 근교의 단위부대장을 맡고 있다(*The Nation* 2006/03/02) 이 중 예비사관학교 10기생들은 탁싨 수상의 동기생들이며 탁싨 수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쏘터 육군사령관을 포함한 여타의 군 세력들은 왕실 자문기관인 추밀원 의장 뻬람을 지지하고 있다.²⁴⁾

탁싨 수상은 사실 집권 초기부터 군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탁싨은 집권 후 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의 예비사관

23) 1980년대 이래 군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육군사령관 차와릿(Chawalit Yingchaiyut)이 만든 콰왕마이당(New Aspiration Party)이었다. 이 정당은 1997년 집권하기도 했으나 2001년 총선 후 타이락타이당으로 흡수통합되었다.

24) 현재 군은 탁싨을 지지하는 세력과 뻬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동기생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시키거나 진급시켰다.²⁵⁾ 그러나 이런 탁싌의 인사개입은 반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6기생의 대표주자인 쏘티(Sonthi Boonyaratglin) 육군 사령관은 얼마 전 군 정기인사이동(12월)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중간급 장교(대대장 급)의 인사이동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해당자는 탁싌과 가까운 10기에 졸업한 장군취하에서 일했던 방콕주둔 주요 보병, 포병, 기갑부대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덜 중요한 자리인 참모부나 지방으로 인사이동 조치되었다. 이번 인사이동은 탁싌이 쏘티를 육군 사령관보다 정치적 실권이 약한 육군최고사령관의 자리로 전보발령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 후 발표되었다. 쏘티는 직업군인으로 국왕에게 충성할 뿐 탁싌으로부터 어떤 부적당한 정치적 압력도 인정하지 않은 했던 인물이다. 그는 탁싌에게 예스맨이 아니며 탁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려한 어떤 시도에도 반대했었다(*The Nation* 2006/07/20).

탁싌과 반탁싌 진영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일 때 정치권으로부터 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우선 탁싌이 비상계엄을 발포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을 때 10기 주요 군 지휘관들은 탁싌을 지지했지만 육군 사령관 쏘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고 나서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다. 군을 이용하려했던 것은 탁싌만이 아니었다. 1992년 5월 민주화 운동 때같이 군은 시민사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반 탁싌 세력의 선봉에 섰던 쏘티(Sonthi Limthongkul)도 2006년 2월 4일 로얄 플라자(Royal Plaza)에서 개최된 반 탁싌 집회가 끝난 후 2,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육군 본부를 방문해 육군사령관 쏘티를 만나 탁싌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25) 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인 Pornchai Kranler장군은 육군 사령관보. Anupong Paochinda 중장은 1군 사령관, Prin Suwanthat 소장은 1 사단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했다.

서 노골적으로 군의 지지를 구했다.²⁶⁾이 일이 있고 난 다음날 탁션은 3군 수뇌부, 경찰총감과 함께 급히 골프 모임을 갖고 군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세간에 떠돌던 쿠데타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애썼다.²⁷⁾

정치세력의 노골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군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는 않았다. 시위 기간 중 언론감시기구들은 TV 방송국들의 탁션과 안티 탁션 진영의 뉴스비중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육군 사령관 쏘타는 군 방송국인 5번의 편집국에 반 탁션 진영이 싸남루엥(Sanam Luang)에서 열리는 반탁션 집회를 취재하도록 지시했으며 탁션 진영과 반 탁션 진영에 대한 보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The Nation* 2006/03/07). 육군사령관 쏘타는 탁션의 두 차례 비상사태선포 요청을 거절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사태가 일단락 된 후인 5월 18일 군의 정치 불간섭과 쿠데타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국가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악화되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Bangkok Post* 2006/05/19).

그러나 군을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군 내부의 미묘한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되는 사건이 두 가지 발생했다. 탁션 수상 암살기도 사건과 쿠데타 가능성 등의 유포설이 그것이다.

8월 24일 탁션수상 암살 기도사건이 발생했다. 자작극이라는 풍문도 나돌았지만 군 내부의 탁션에 대한 반발기류를 보여 주는 사

26) 방문 후 쏘타는 육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쏘타는 이를 부인하면서 단지 늦은 밤에 발생한 과열된 시위대의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면담에 응했다고 했다.

27) 뿐만 아니라 탁션은 PAD가 대규모 집회를 벌인 직후 연이어 군 수뇌부와 점심식사를 함께했으며 참석한 군 수뇌부들은 쿠데타 발발 가능성과 군이 탁션 사임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건이었다. 탁썬 수상 관저 가까운 곳에서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국내안보작전사령부 소속의 타왓차이(Thawatchai Klinchana) 대위였다. 사건 발생 후 그는 구속되고 그의 직속 상관인 판롭 뽀만니(Panlop Pinmanee) 장군은 즉각 파면되었다. 판롭 장군은 육군 사관학교 7기 졸업생이며 탁썬 퇴진운동에 앞장 선 PAD 지도부의 중요 인물 중 한 사람인 찰롱(Chamlong Srimuang)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래서 탁썬 측에서는 이 사건을 탁썬에 대한 군 내부 반발세력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일종의 쿠데타로 인식했다.

12월에 실시될 군 정기 인사이동문제를 놓고 그 공정성을 제기하면서 군 내부의 불만도 거셌다. 탁썬계 장교들의 특혜성 진급과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이었다. 몇 명의 군장성들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비난했다. 또 육해공군 유력 장성들은 추밀원 의장인 뽀렘을 방문하여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군 장성들은 탁썬이 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분리지배함으로써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angkok Post* 2006/09/13). 이 사건은 군심을 크게 자극했으며 9월 들어서 군 쿠데타설이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9월초 탁썬 수상은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아 (ASEM)총회 참석 중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즉 탁썬은 군내 반대세력들의 불만을 충분히 간파하고 이들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을 흘리면서 군 내 자파세력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이들의 쿠데타를 분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 발발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19일 태국에는 18번째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1991년 쿠데타가 발생한 지 15년만의 일이다. 육해공군 및 경찰로 구성된 민주개혁 평의회(육군 사령관인 쏘티 분야랏끌린 대장이 의장)는 대변인 발표를 통

해 “헌 정권의 국론분열, 부정부패 등을 적결하고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해 군부와 경찰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장악한다고 주장했다.” 쿠데타 후 태국 군부는 상.하원과 내각,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쿠데타가 발생한 시각 탁싨 수상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 중이었다. 그는 쿠데타 이전 군부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밤 10시경 국영 TV인 채널 9를 통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따라서 군부의 쿠데타 성공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유동적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푸미폰 국왕이 민주개혁평의회 대표인 쏜티 분야랏끌린 장군을 민주개혁평의회 의장으로 정식 임명하고, 국민에게 평온을 유지할 것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쏜티 장군의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함으로써 쿠데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탁싨 정권은 완전히 축출되었다.

3. 국왕의 정치적 역할

태국 정치구조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입헌군주제하에서 초정치적(above politics) 입장에 있는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 헌법에서 국왕의 위상에 대한 조항은 전혀 변화된 바가 없었으며 개정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근한 국왕의 정치적 역할 사례는 1992년 5월 사태의 해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후 국왕은 과도내각 구성에 간여했고 1997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자립경제의 개념(self-sufficiency, setthakit phiyang pho)을 제시했으며 1997년 개정헌법을 공포하면서는 “국민의 헌법(the People's Constitution)”을 승인한다는 말로 개정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도 했다. 2001년 탁싨이 집권 한 후 국왕과 탁싨간의 관계는 그리 순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국왕은 탁싨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과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때 이례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아 불만을 나타낸 적도 있었다. 양 기관의 장은 상원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왕은 추천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탁싨은 태국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받을 언행을 자주 표출하여 정적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후일 탁싨 퇴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탁싨은 이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탁싨과 쏘티를 중심으로 한 PAD 진영의 격렬한 정치적 대결 국면 초기에 왕실은 개입을 극히 자제하고 있었다.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 의원 쉐라웃 쉐라론(Surayud Chulanont)은 "모든 사람들은 어른이고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Bangkokpost* 2006/03/09). 그러나 결정적 시기가 오자 국왕은 적극 개입했다.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4월 2일 총선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탁싨은 4월 2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반탁싨 진영에 대해서 화해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의욕을 보였지만 4월 4일 오후 후어 힌(Hua Hin)의 클라이강원 궁전(Klai Kangwon Palace)에서 국왕을 면담한 후 사임을 발표했다. 사임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내가 차기 수상직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는 금년이 국왕 즉위 60주년을 맞는 상서로운 해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태국인들이 화해하기를 원한다"(*The Nation* 2006/04/05).²⁸⁾ 탁싨은 칫차이 완나싸티(Chidchai Wannasathit) 제1

28) 탁싨은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수상의 직을 맡지 않을 것이나 타이락타이당의 당수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가 구성 될 때까지 수상직의 업무를 보지 않고 제 1부수상인 칫차이에게 업무를 맡긴다고 발표한 후 수상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의 언행은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이었다.

부수상을 수상대행에 임명했다.

탁신킨이 일시적으로 수상의 직에서 물러나고 난 후에도 경색된 정국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 선출되지 않은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를 치르더라도 전체 의석이 메꾸어 질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새로운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수상도 선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왕은 헌법 7조를 통해서 현재의 난국해결에 개입하라는 요청(야권에서는 국왕이 이 조항에 의거해 수상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을 일단 거부했다.²⁹⁾

그러나 국왕은 2004년 4월 25일 클라이왕원 왕궁에서 있었던 새로운 행정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4월 2일 치러진 타이라타이 1당 선거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며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책망했다(*The Nation* 2004/04/26). 그리고 행정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들이 헌 시국을 풀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5월 8일 총선 무효화 판결을 내리고 새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탁신킨과 반탁신킨 진영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했다. 새로운 총선의 날짜는 2006년 10월 15일로 정해졌다.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동안 수차례의 쿠데타와 정치위기 시에 중재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 파국을 막곤 했다. 중요한 정치변동 시에 각 정치세력들은 국왕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했다. 이번에도 친 탁신킨세력³⁰⁾과 반 탁신킨 세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왕의 지지를 구

29) 헌법 7조는 “헌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사건의 판결은 입헌군주제 통치의 전통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국왕은 헌법 7조는 국왕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며 입헌군주제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며 만일 국왕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의 의무를 넘어서는 비민주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해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국왕의 힘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치열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반 탁싌 세력의 선봉에 섰던 쏘티는 탁싌을 향해 왕실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공격했으며 31) 이에 대해서 탁싌 총리는 쏘티가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명예훼손과 국왕에 대한 모독죄의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32)

3월 23일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탁싌 정부가 추진해온 국영전력 회사(Egat: The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의 민영화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관련 포고령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반 탁싌 세력은 탁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민영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왕명 두 건이 공포된 적이 있기 때문에 탁싌에 대한 책임공세는 실제로 국왕모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쏘티는 왕실모독죄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 후 쏘티는 중국에 가 있게 되는 데 망명설이 나돌다가 선거 당일인 4월 2일이 되어서야 귀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쏘티의 언급을 적절히 게재하지 못한 타이어판 콤차룩(Kom Chad Luek)신문은 5일 동안 자진 정간해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은 평화적인 시위는 용납될 수 있지만 국왕에 대한 모독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30) 북부와 동북부 지방에서 올라온 경운기 시위대라고 불리는 농민 그룹인 카라반 부대(Caravan of the Poor)가 대표적인 친 탁싌 세력이었다.

31) 그동안 국왕을 둘러싼 대표적인 공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탁싌은 2004년 4월 왕실 사원인 에머랄드 사원에서 의식(국가의 불행을 피해하기 위한 의식)을 주재한 사실이 있었다. 탁싌 측에서는 적절한 의전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 곳은 왕실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그의 처신이 커다란 비난의 대상(불경죄)이 되었다. 또 그는 자주 왕실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자신이 국왕에게 충성을 안 하면 어느 귀신이 충성을 한단 말인가?” “국왕께서 귀뜸을 해주시면 사퇴하겠습니다.” 등. 탁싌은 태국불교의 최고 수장인 승왕대행을 임명하는 월권을 행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쏘티는 탁싌을 왕실모독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32) 그러나 법원은 탁싌 수상의 쏘티에 대한 구속신청을 기각했다.

(*The Nation* 2006/04/02).³³⁾

타쑈이 일시적으로 수상의 직에서 물러 난 후 주춤했던 국왕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정치적 공방들은 타쑈이 수상의 직으로 돌아온 후 다시 재개되었다. 쏘티와 푸짖깐 신문 칼럼리스트인 차이아난(Chai-anan Samudvanija) 등은 타쑈이와 타이락타이당은 이미 수년전에 핀란드(Finland) 모임을 통해서 입헌군주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하는 모의를 한 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를 소위 Finland Plot라고 주장했다(*The Nation* 2006/5/27). 타쑈이는 6월 29일 정부청사에서 있는 고위공직자 대상의 연설에서 “헌법 밖에서 그에게 반대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푸미바라미 닉 랏타탐마논)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따르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 발언 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정국에 회자되었다. 그러던 중 타쑈이의 법률고문이었었던 미차이(Meechai Ruchuphan)는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 언론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국왕이라고 믿고 있으며 타쑈이는 헌법 8조인 국왕모독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angkokpost* 2006/07/06)³⁴⁾

PAD도 이에 합세했다. PAD는 7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반타쑈이 운동의 주요 테마를 왕권 도전에 두었다. 쏘티는 이 사건을 빗대어 태국 국민들은 국왕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타쑈이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The Nation* 2006/07/12) 타쑈이의 사임을 재촉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우리는

33) 타쑈이 일시적으로 물러난 후 사태가 일단락되자 국왕을 둘러싼 왕실모독공방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형법 112조의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왕실모독죄는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기 때문이다. the Thai Journalist's Association 가 주최한 한 세미나(왕실모독죄와 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발표자는 왕실모독죄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서 내각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주장했다(*Bangkokpost* 2006/04/23).

34) 타이락타이당에서는 카리스마를 갖는 인물은 PAD, 뿌라차티뻏당, 다른 반정부 기구를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The Nation* 2006/07/07).

모두 국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왕을 정치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Bangkokpost* 2006/07/06).

현재 태국국왕의 카리스마는 정점에 와 있다. 금년은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 행사가 있었다(2006. 6.12-13일).³⁵⁾ 이 행사에 앞서 국왕은 5월 26일 태국을 방문한 코피아난(Kofi Anan)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그동안 가난한 농촌개발에 대한 공로로 유엔이 수여하는 상을 수상(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s inaugural Human Development Lifetime Achievement Award)했다. 이런 행사들은 모두 국왕의 카리스마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행사였 들이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푸미폰 국왕에 대한 태국국민들의 존경심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³⁶⁾

10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국왕은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이나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꾸준히 정국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두 건의 발언이 있었다. 추밀원 의장인 뽀렘은 국왕이 신뢰하는 최 측근 인사다. 그는 2006년 7월 14일 육사생도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탁선) 정부를 경마의 기수로 비교하고 군인들을 말에 비유하면서 “기수는 오고 가는 것이지만 말 주인은 항상 같다. 군은 어떤 정부에 소속된

35) 군주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29개국 중 26개국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36) 태국사람들의 국왕에 대한 존경심은 외부인의 눈에는 지나칠 정도로까지 비추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탁선과 노골적인 반목을 나타내며 그의 일시적인 퇴진에도 크게 기여했던 영자신문 네이션지의 국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존경심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금요일 태양보다 더 동정심 많고 친절하고 다정한 유일한 것은 아난타 마히돈 왕궁 발코니에서의 국왕전하의 눈길이었다. 그분은 행복했다. 우리는 그 분의 옆지만 가냘픈 따뜻한 미소로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The Nation* 2006/06/14)”. 이 기사는 2006년 6월 9일 아난따마히돈 왕궁(Ananta Samakhom Throne) 발코니에서 열린 푸미폰 국왕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 운집한 국민들 앞에 선 국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것이 아니며 국왕에게 속해 있다(*Bangkokpost* 2006/07/15)"는 발언을 통해 군에 대해서 탁싨 정부보다는 국왕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8월 31일에 있었던 공사생도들 대상의 특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서 탁싨 수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왕국의 신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을 저주한다...왕국은 신성하며 악의 세력은 결국 스스로 패배할 것이다...어떤 사람들은 국왕의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길 수 없는데 아마도 정직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은 국왕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 일 것이다."(*The Nation* 2006/09/01) 국왕이 신임하는 또 다른 인사인 아난 전 수상은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단합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 현상(탁싨 지지세력과 반 탁싨세력간의)과 증오가 계속된다면 태국은 실패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The Nation* 2006/09/01).

국왕의 의중이 실렸다고 생각되는 이런 발언들은 4월 2일 총선이 있는 후 탁싨이 실시되진 하기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19 쿠데타가 발생하자 국왕 배후설이 파다했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 발생의 주요 이유 중 중 한가지로 탁싨 수상의 국왕에 대한 모독을 주장했으며 쿠데타 발생 후 국왕은 즉각 쿠데타를 승인하여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또 쿠데타 후 구성된 과도내각의 쑨라웃 수상,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인 쏜티 육군 사령관, 또 이들의 대부적인 추밀원 의장 뽀렘은 모두 국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물들 이었다.

V. 맺는말

오늘날 태국의 정치구조는 1997년 개정헌법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구조의 특징들 — 소수정당의 난립 방지와 다당제를 지양한 정당체제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의 도모, 관료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의 영향력 확대 — 이 2000년 이후 몇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살펴 보았다.

첫째,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지양함으로써 빈번한 연립내각의 교체가 개선되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타이락타이당의 압도적인 일당우위제가 확립되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심각한 정치불안이 발생했다.

둘째, 최초로 상원 직선을 치름으로써 관료세력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간섭에 의해 상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결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개입까지 초래되었다.

셋째, 권위주의 정부의 간섭으로 사법적 준사법적 기구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다.

넷째, 탁싌 정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운동세력은 탁싌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 되어 탁싌의 일시적인 수장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

다섯째, 태국의 독특한 정치구조를 특징짓는 입헌군주제 하의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과거 정치적 위기 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유효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직접적으로 국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많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 같이 2000년 이후 선거를 치르면서 형성된 정치구조의 실체는 개정헌법에서 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구조는 준 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 비관료세력 우위가 이루어졌지만 타이락타이당 일당우위제로 인한 새로운 권위주의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치불안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런 정치구조 하에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은 (의회 밖의) 시민사회운동세력이며 정치적 위기 시에 국왕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태국 정치구조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총선이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대략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국의 불안정성이다. 탁싸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탁싸파와 반탁싸파 사이에 무력충돌들이 발생했으며 탁싸 암살기도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군 정기인사이드문제로 생긴 군 내부의 반발 움직임 등으로 공공연히 쿠데타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둘째 검찰이 지난 6월 27일 타이락타이당, 뿌라차티팻당과 기타 3 개의 소수정당을 해산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했으며 헌법재판소는 5개 정당의 해체여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해 향후 커다란 정치적 파문이 예상되고 있었다. 셋째, 공석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위원 후보자 명단을 상원에 제출한 후 상원에서 적격자를 심사 중이었는데 그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 선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 정치구조의 변화를 특징지을 가

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락타이당의 일당우위 유지 여부와 새 정부가 추진할 헌법개정작업의 향배였다. 선거결과에 대한대체적인 예측을 살펴보면, 타이락타이당이 승리를 거두리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단독 정부를 수립할 만큼의 의석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립정부 구성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다. 또 어떤 형식이든 타이락타이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탁썬이 수상의 직에 다시 오르는 경우 정치적 혼란 상황은 종식되기 어려울 것이며 헌법개정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탁썬이 물러난 후 타이락타이당은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쿠데타 포고령 27호는 정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되면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 동안 금지시킬 것을 규정했다. 이를 우려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탁썬을 비롯한 타이락타이당 간부들은 대부분 탈당해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통해 기존의 일당우위제 정치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쿠데타 후 쉐라우트 과도내각은 1년 내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총선을 실시하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새로운 헌법은 대체로 권력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수상권의 약화, 독립적인 기구에 대한 정부 간섭배제, 인권보호와 국민의 정치참여 강화, 부정부패 감시 기능의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정치구조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1997년 개정헌법의 경우와 같이 제도보다는 운영이 더 문제가 되는 정치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정치구조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군의 정치적 역할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세력의 대응, 국왕의 정치적 역할 등이 여전히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구. 2003. "태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정치변동."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13권 2호.
- 김홍구. 2004. "태국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14권 2호.
- 김홍구. 2005.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와 정당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05년 겨울호(통권 35호).
- 박은홍. 2004. "지배구조의 자유화, 사회적 신뢰,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비교." 2004년도 5월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 이동운. 2005.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15권 2호.
- Albritton Robert B. 2005. "THAILAND IN 2004: The "Crisis in the South," *Asian Survey*, Vol. 45.
- Brown, Andrew and Kevin Hewison. 2004. "Labour Politics in *Thaksin's Thailand*." *Working Paper Series* no.62. (March),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Chai-Anan Samudavanija. 1986.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Robert Scalpino, Seij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Chatornvong, Sombat. 2002. "The 1997 Constitution and the Politics of Electoral Reform." Duncan McCargo, ed. *Reforming Thai Politics*. Copenhagen: NIAS Publishing.
- Funston, John. 2002. "Thailand: Thaksin Fever." *Southeast Asian Affairs 2002*. Singapore: ISEAS.
- Ganesan N. 2004. "Thaksin and the Politics of Domestic and Regional Consolidation in Thailan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6, no. 1(2004)

- Jayasuriya, Kanishka and Kevin Hewison, 2004, " The Anti-Politics of Good Governance: From Global Social Policy to a Global Populism," *Working Paper Series* No. 59(Januar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McCargo, Duncan, 2002, "Thailand's January 2001 General Elections: Vindicating Reform," Duncan McCargo, ed, *Reforming Thai Politics*, Copenhagen: NIAS Publishing.
- Mutebi, Alex M, 2003, "Thailand in 2003: Riding High Again," *Asian Survey* Vol. 44, No. 1 (Jan./Feb.).
- Nelson, Michael H, 2001, "Thailand's House Elections of 6 January 2001: Thaksin's Landslide Victory and Subsequent Narrow Escape," Michael H. Nelson, ed, *Thailand's New Politics KPI Yearbook 2001*, Bangkok: White Lotus Co., Ltd.
- Panasornprasit Chookiat, 2004, "Thailand: Politicized Thaksiniz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S'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ongsudhirak, Thitinan, 2003, "Thailand: Democratic Authoritarianism," *Southeast Asian Affairs 2003*, Singapore: ISEAS.
- Punthong, Yutthanaa, 1997, *Khamthaam-Khamtop Ratthathammanuun haeng Raachaaanaacakthai 1997* 1997년 헌법 질의, 응답]. Krungtheep: Samnakphimnitiyut.
- Riggs, Fred W, 1966, Thailand: *The Modernization of a Bureaucratic Polity*,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The Nation, Bangkokpost, Dailly News* 각 호.

ABSTRACT

The General Elections and Political Structure Changes in Thailand

KIM Hong-koo

Professor,
Thai Department,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structure changes in Thailand, that resulted from the elections which were held under the 1997 Constitution. The time period for this paper accounts for Thaksin Shinawatra's regime, that was toppled by the military coup amid the increasing opposition pressure on its authoritarianism. The 1997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s to reform the current multi-party system, which caused the political instability, to eliminate bureaucratic circle's political power from the political area, to expand political influences of civil society, and to expand political influences of judicial and semi-judicial institutions. But the intentions couldn't be reflected in political reality.

In this paper, we'll analyze how truly the polit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1997 Constitution's intentions, has changed since the general elections from 2000. In order to reach this objective, the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Part one is introduction. Part two includes the changes of political party system from the elections which were held under the 1997 Constitution. Part three deals with the political result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political party system. Part four deals with the responds of main political actors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s. Last part provides conclusion with the integrative analysis

for the change of political structure.

Key Words : the 1997 Constitution. General Elections, Political
Structure, Authoritarianis